

CHAPTER 3. 수시 합격 결정짓는 마지막 하나

4) 대학이 뽑고 싶은 자기소개서 작성법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던 학생부, 자기소개서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면접'이지요. 면접이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소인 이유는 평가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단계별 평가로 진행되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1단계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종합평가해 최종 인원의 2~5배수를 선발하지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성적을 합산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일부 대학들은 이 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합니다.

결국 서류, 면접,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평가의 핵심 요소인 셈인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면접'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먼저 서류. 1단계는 수많은 지원자 중 선발 인원의 일정 배수를 추려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소서 작성법, 학생부 기록법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1단계 서류평가가 크게 변별력을 갖지 못하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떨까요? 수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최저' 학력기준일 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어영역 절대평가로 이 조차도 유명무실해지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세대는 2018학년도부터 심층면접을 강화한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을 신설했고, 고려대 또한 고교추천전형의 면접 반영비율을 늘리는 변화를 쫓지요. 결국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면접에 더욱 더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은 어떻게 출제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대학에선 어떤 면접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파악해봅시다. 대학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생부·교사추천서 등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기반 면접'과 대학이 사전에 출제한 문항을 통해 지원자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을 평가하는 '제시문기반 면접'이 그것이지요.

입학사정관들은 서류 기반 면접을 통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인성 △가치관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적 역량 등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등장 할까요?



서류 기반 면접의 질문 예시

"교내 심폐소생술 대회에서 1등을 하고,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는데, 어떻게 실시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국어 토론 대회에 3년간 모두 참가했다고 적혀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주제를 꼽고 토론대회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학생회장으로서 급식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과 교사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했으며,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기소개서 진로계획을 보면 공학자로서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중요하여 봉사도 하고 인문사회 서적도 읽어보겠다고 했는데, 공학자가 어떤 면에서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표1>에 등장한 질문들은 모두 서류 기반 면접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보고 위와 같은 질문을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던진 것이지요. 이를 보면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을 달달 외우기만 해서는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활동에 대해서도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활동 전후의 맥락과 실제 활동 내용, 그 활동으로 자신이 느끼고 배운 점, 활동과 연관된 이론과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면접에서 좋은 답변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보며 면접에 나올 수 있을만한 질문을 미리 정리해 본 뒤 친구들과 함께 모의면접을 진행해보거나 면접 장면을 녹화한 뒤 답변 내용과 태도 등을 교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에선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부 독서활동상황에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읽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면접관으로부터 "동물농장을 읽고 무엇을 느꼈나?"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답변 가능한 질문이지요. 하지만 이 질문에 답변한 뒤 곧바로 추가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책과 사회계약설은 무슨 관계인가?" "지원자가 말한 전체주의가 동물들이 동의한 것은 아닌가?" "전체주의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추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짧은 기간 서류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그 생각을 바탕으로 또 다른 활동으로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면접 전 단기간에 예상 질문을 뽑아 대비해서는 결코 다른 지원자를 뛰어넘는 답변을 내놓을 수 없으니 평상시에 깊은 생각을 하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이 같은 서류 기만 면접 외에 제시문을 주고, 이에 대해 학생이 일정 시간 동안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한 뒤 면접장에 들어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도 출제됩니다. 이런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수학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함이지요. 수험생은 해당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하지요.

이런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할 때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행학습영향평가 연구 보고서'를 활용해 봅시다. 이 자료 안에는 전형별 기출문제와 출제지도, 출제근거가 담겨있습니다. 즉, 이 자료는 면접 연습뿐만 아니라 면접 출제 경향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출문제집인 셈이지요.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살펴봅시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전형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연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평등한가?(인문)', '어떤 결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과 인공지능 중 누구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할까?(자연)' 등의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제시문 기반 심층면접에선 전공과 관련된 이슈들이 면접 질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감소, 청년층 구직난과 관련된 그래프를 제시한 뒤 '정년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거나 도시 인구 밀집, 자원의 편재, 영화관 스크린 독점에 관한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쏠림 현상이 지원 전공분야에서 나타나는 예를 말해보라'는 질문을 하는 식이지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희망 전공과 관련된 시사 이슈를 파악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시사 이슈'만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슈에 매몰돼서 해당 이슈만을 쫓아가며 대비하기보단 해당 이슈와 연관된 사실과 칼럼 등도 함께 찾아 읽어보면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면접에서는 특정 시사이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연계열 심층면접에선 수학 및 과학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문으로 나옵니다. 이에 따라 평소

공부하는 습관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요. 무조건 정답을 찾기보다 '이 답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을까'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풀지 못하는 친구에게 '문제 풀이 과정을 쉽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준다'는 생각으로 설명해보는 것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풀이과정을 추론해보거나 담당 교사를 찾아가 풀이법을 함께 논의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면접에선 관련 원리나 이론을 실생활과 연결해 폭넓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교과 지식만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이것은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될까'를 깊게 고민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지원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자신의 생각을 두괄식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에 따라 면접시간이 5~15분 내외로 진행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조리 있게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연관된 교과서를 읽어보며 교과서 속 개념을 정리한 뒤 직접 입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살펴본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 이를 실제 대학 면접 고사장에서 출제되는 질문의 형태별로 다시 세분화 해보겠습니다. 크게 △서류확인 질문 △전공적합성 질문 △심층 질문 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순히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유형의 서류확인 질문은 10분 내외의 간단한 일반면접에서 주로 출제됩니다. 서류 확인 질문은 크게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질문 △인성 및 가치관 확인 질문 △특정상황을 가정한 질문 등으로 나눌 수 있지요.

서류 진위 확인 질문은 교과, 비교과, 교내 활동, 독서 등 수험생이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이 출제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수험 생들은 면접 직전까지 자신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보며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을 떠올리고 기록해봐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 또는 추가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라고해서 단순히 사실만을 담은 답변을하면 면접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경험 등 사실 30% △특정 활동을 통해 느낀 점 60% △이후에 자신이 변화된 과정 10% 정도 비중으로 예상 답변을 만들고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면접관들은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질문합니다. 인성 및 가치관 등을 확인하는 질문이나 특정 상황을 가정한 질문을 통해 지원자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생활신조를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자신의 롤모델은 누구이며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라'와 같은 질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장래희망이나 전공 적성과 연관시킨다'는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신조와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정직함을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 나의 장래희망인 판사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와 같이 자신의 꿈과 연관시켜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지원자가 지원 학과에서 공부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학생인가'를 가늠하기 위해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진로 등을 묻는 '전공적합성 질문'을 합니다. 특히 지원동기를 묻는 질문은 단골 출제 질문이므로 해당 '대학'에 지원한 이유와 그 중에서도 해당 '학과'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전공적합성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이로 인해 지원동기의 근거가 되는 경험이 수험생들마다 비슷해졌습니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지원동기를 만들려면, 자신의 이야기로만 채우기보다는 해당 대학과 학과의 특성을 찾아 자신의 지원동기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특별히 관심 갖는 분야는 이러한 분야인데, 이 대학 학과의 교수님이 그 분야에서 남다른 연구 실적을 내신 걸로 알고 있다. 교수님으로부터 내 관심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도를 받고싶어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하면 똑같은 활동을 해온 수험생들과도 구별되는 답변을 하는 것이죠.

간혹 일반면접에서도 지원학과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적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공 역량과 전공 지식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지리학과 융합지리학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라' '칸트의 의무론, 공리주의, 실존주의를 아는 대로 설명해보라'와 같은 질문이 그것인데,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이 언제 나올지 모르므로 면접 전 자신이 지원하고자하는 전공과 연관된 교과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점검 해두어야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자가 입학 후에 대학 교육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문에 기반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제시문 기반 심층면접에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제시문을 지문으로 제시한 후, 이와 관련된 2, 3개의 문제에 대해 답하라는 '자료제시형'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들은 대부분 고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반적인 질문부터 점점 질문의 난도를 높여가는 '다단계 질문' 형식으로 출제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특정 학과나 학부에 제한되지 않는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제시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지, 주제를 어떻게 읽어낼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두괄식 답변을 구성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과정 중심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요지파악형 △비교분석형 △비판평가형 △적용추론형 등으로 출제되는 논술 기출문제를 면접 문제라고 생각하며 연습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및 과학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문으로 출제됩니다. 관련 원리나 이론을 실생활과 연결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수학 및 과학의 기본적 정의나 정리, 원리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참신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풀이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라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구분 없이 모두 최근 시사 이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지원자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시사 문제나 사회적인 쟁점들을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원리나 이론들과 연관 지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두고, 자연계열 지원자는 드론, 인공지능 등 기술개발이나 공 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에서 시사 이슈를 물어보는 경우, 인문계열 수험생들에게는 '지역 개발과 국가적 경제 발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말해보라' '동북공정, 영토분쟁에 대해 말해보라'와 같은 질문이 주어지고, 자연계열 수험생들에게는 '나노기술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 아는대로 설명해보라'와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해당 시사 이슈와 관련 된 지식이 아예 없다면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겠지요.

하지만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므로, 어떤 주장을 펼치느냐보다 주장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집중해 답변하려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남은 시간 동안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특정 시사이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는 연습을 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시사 이슈 중에서 어떤 주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깊은 이슈부터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대입 전형은 전반적으로 학생의 적성, 전공적합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사 질문도 전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깜짝' 돌발질문도 대비해야

이제 남은 것은 실전 면접에서 '잘' 해내는 일 뿐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탄탄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요. 특히 서류나 전공, 최근 이슈와도 전혀 관련 없는 돌발 질문이 나오는 경우 수험생들은 이른바 '멘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면접관이 범위가 넓은 시사 질문을 하거나, 갑작스러운 돌발 질문을 던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시사 이슈에 관한 질문은 전공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조금이라도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있지만, 기존의 면접 맥락과 관계없이 '돌발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은 수험생들이 쉽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일단 수험생을 당황시킨 뒤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므로 최대한 침착하고 여유로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돌발 질문 중에서도 지원자가 이미 한 답변의 주장을 바꾸기 위한 '압박 질문'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면접관의 압박 질문에 이끌려서 답변을 내놓다보면 어느새 처음 답변과 다른 맥락의 주장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탄탄한 답변은 공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논리가 부실하면 이러한 압박형 질문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한 주장의 주요 근거에 대한 방어를 잘 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압박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자신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답변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날카롭고 공격적인 돌발 질문을 받더라도 크게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는 '나를 좋게 평가한 면접관이 대처능력이나 창의력을 추가적으로 시험해 보기 위해 질문하는 거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답변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기방어에 치중한 나머지 배타적인 태도로 답변을 하면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질문을 하는 의도를 파악한 뒤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